

국외출장계획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김지윤	직급	전문연구원	
	소속	대외협력사업부	성명	김주형	직급	전문연구원	
	소속	EAAFP	성명	도혜선	직급	전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업무협의회)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발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초국경 협력 워크숍 및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 초국경 습지 및 생태계 보호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 국정과제 그린데탕트, 글로벌 중추국가 이행 공유 및 초국경협력 정책 아젠다 지지기반 구축 ○ 관련사업 : 동서해 평화번영기반 구축사업(일반사업)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김지윤	9,035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김주형	5,646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출장기간	2024. 7. 15. ~ 2024. 7. 21. (5박 7일)			출장지		스위스(글랑) 영국(캠브리지)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7.15.(월) 오전, 오후	부산(08:35) → 서울(09:45)			○ 항공 이동		KE 1412
		서울(11:50) → 암스테르담(18:55) 암스테르담(20:50) → 제네바(22:15) 제네바 → 글랑			○ 항공 이동 ○ 이동 (대중교통 우선 이용, 단, 도착 사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가 시 택시 이용)		KE 925 KE 6411
	7.16.(화) 오전, 오후	- 람사르 사무국 - IUCN			○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국제기구 협력 네트워크 전문가 회의		-
	7.17.(수) 오전, 오후	글랑 → 제네바 제네바(15:50) → 런던(16:35) 런던 → 캠브리지			○ 이동 ○ 항공이동 ○ 이동(기차)		- LX 348 -
		영국 RSPB 습지			○ 기관방문 및 습지복원 파트너십 회의 ○ 습지복원 지구 현장 방문		-
	7.18.(목) 오전, 오후	영국 RSPB 습지			○ 기관방문 및 습지복원 파트너십 회의 ○ 습지복원 지구 현장 방문		-
	7.19.(금) 오전, 오후	캠브리지 대학			○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협력 워크숍 개최		-
7.20.(토) 오전, 오후 -7.21.(일) 오전, 오후	캠브리지 → 런던 → 서울(7/21(일) 이동			○ 이동(기차) ○ 항공 이동		KE 908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당초 출장계획서에 기술한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일정대로 이행 ○ 주요 성과 - 지속가능한 연안해양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초국경 협력 관련 제도, 영국 지역 철새 보호 및 연안 습지 복구.보전 전문가의 경험과 결과 공유 - 초국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영국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장래 협력 기반 마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국내기관 네트워킹에서 관련 내용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게 공동컨퍼런스 내용 공유, 향후 국정과제 '그린데탕트 구현'에 반영 - IUCN, WWF, 람사르 사무국 등 국제기구 및 RSPB 등 NGO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발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7월 16일(화) 13:00~15:00/ 람사르 사무국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국제기구 협력 네트워크 전문가 회의 1
수행계획	○ 참석자: 김지윤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도혜선 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유범식 람사르 사무국 선임담당관, 람사르 관계자 등 ○ 회의 내용 : 람사르 갯벌 협력 - 해양분야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방안 - 향후 접경 수역 및 서해 갯벌 중심 해양환경 분야 협력 방향과 공동 추진 방안 - 갯벌 보호와 관련한 동북아 초국경 해양협력의 가능성, 협력 플랫폼의 다양화와 국제 보호구역 관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초국경 협력사업 발굴
수행결과	□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국제기구 협력 네트워크 전문가 회의 1 ○ (일시 및 장소) 7월 16일(화) 13:00~15:00 / 람사르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김지윤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도혜선 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유범식 람사르 사무국 선임담당관 ○ (주요 내용) - 70년대 우선시된 환경분야 국제협력은 자연 자원에 대한 것, 그 중 철새와 철새의 서식지인 습지 보호가 최우선. 이를 위해 서식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최초의 환경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 채택. 당시에는 지역단위의 습지보호, 세계문화유산 보호, 종거래 금지 등에 집중 - 람사르 협약은 172개 당사국이 가입, 256,192,356헥타르에 해당하는 2,471개의 람사르 습지 지정. 이 중 995개소가 해양 습지 또는 연안 습지, 629개소는 이탄지 - 습지와 이탄지의 소실은 지중 저장 등으로 격리된 탄소 배출을 초래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자연 자원. 습지의 경우 1970~2015년 전 세계 습지의 35% 정도 상실되었으며, 이는 전세계 우림 소실량의 3배로 블루카본 시스템이 연평균 1.5~2% 없어지는 것과 동일. 또한 이탄지도 매년 5천만 헥타르씩 없어지는데 이는 인간 활동에서 기인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4%에 해당 - 한반도에서 습지에 관해 협력할 곳이 연안에 많은데, 가장 가까운 곳이 한강하구의 장항습지. 다만 이곳은 지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되기 어려움.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황해 쪽으로 세 번째 람사르 사이트를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함 - 국가간 협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협력 체계인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RRIs)를 운영. 현재 21개 RRIs가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람사르 센터와 지역 협력을 위한 람사르 네트워크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 기술 전문가, 국제 NGO, 민간기업,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협력 플랫폼을 제공 - 초국경 람사르 습지는 아프리카 4개, 동유럽 14개, 북유럽 2, 서유럽 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향후 습지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협력 방안 구상시 KMI와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협력하기를 바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사진) 
업무②	7월 16일(화) 15:30~18:00/ IUCN 회의실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국제기구 협력 네트워크 전문가 회의 2
수행계획	○ 참석자: 김지윤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도혜선 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세계자연기금(WWF) 본부 전 한국사무소 창립 사무총장(현 Network Development Executive Director), IUCN 본부 세계자연유산팀 국장, IUCN 관계자 등 ○ 회의 내용 : 세계자연유산 협력 - 해양분야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방안 - 향후 접경 수역 및 서해 갯벌 중심 해양환경 분야 협력 방향과 공동 추진 방안 - 세계 자연유산으로서의 갯벌과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동북아 초국경 해양협력의 가능성, 협력 플랫폼의 다양화와 국제 보호구역 관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초국경 협력 사업 발굴
수행결과	□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국제기구 협력 네트워크 전문가 회의 2 ○ (일시 및 장소) 7월 16일(화) 15:30~18:00 / IUCN 회의실 ○ (참석자) 김지윤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도혜선 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Janaka De Silva IUCN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Jessica Battle WWF 해양 담당관, Jean-Paul Paddack WWF-Korea 공동이사장, Maria Honig WWF 해양정책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주요 내용)

- IUCN의 업무는 생물종의 멸종위험을 관리하는 데에서 확장하여 해양환경 및 기후위기 등을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담수 관리 및 물안보, 자연 기반 솔루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마련
- IUCN의 새 업무 범위 중 생물다양성과 자연 기반 솔루션 등은 연안 해양환경과 습지 보호와 연관되어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 검토 가능
- 해양 관련해서는 블루카본, 해양산성화, 해양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보호구역 등에 관해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방법론 개발 등 추진
- WWF는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산호초 구조 이니셔티브, 해양생물,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해양관련 이슈에 대해 각국 정부의 대응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설득하는 역할을 함.
- 북한과는 직접적으로 협력한 경험은 없으나 중국과의 협력 경험은 있음. 황해에서 WWF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한 경험이 있으며,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주요 파트너가 필요할 것임.
- WWF의 연안공동체 이니셔티브는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산업 분야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유럽에 지역들을 연결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있으니, 이를 좋은 모델로 삼아 한국형 이니셔티브를 만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사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7월 17일(수) 19:00~20:00 사전 준비회의
수행계획	○ 워크숍 및 현장답사 사전 준비 회의 - KMI 출장자, 제주대학교 최지현 교수 등 5인
수행결과	○ (일시 및 장소) 7월 17일(수) 20:00~21:00 / 캠브리지 대학 인근 회의실 ○ (참석자) 김지윤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도혜선 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William Sutherland 캠브리지 대학 교수, Nicola Crockford RSPB 주정책관, Jeff Kew 이스트코스트 습지 프로그램 매니저, Sayam U. Chowdhury 캠브리지 대학 박사, 최지현 제주대학교 교수 ○ (주요 내용) - 사전답사 및 워크숍 운영 관련하여 세부 사항 협의 - 현장답사시 습지까지 차량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7월 18일 이른 오전 출발, 차량 및 안내는 Jeff Kew RSPB 프로그램 매니저가 지원 - 워크숍 장소는 RSPB 측에서 캠브리지 대학과 협의하여 제공, 발표자료는 공유하여 proceeding book으로 제작하여 파일 공유 - 올해 가을 해수부 초청으로 RSPB 관계자가 한국 방문 예정으로 일정이 된다면 follow-up 회의를 가졌으면 함
업무④	7월 18일(목) 11:00~18:00 RSPB(왕립조류보호협회) 본부기관 및 RSPB 습지복원 지구 방문
수행계획	11:00~13:00 ○ RSPB 방문 및 업무협의 - 논의 내용: 습지 복원에 대한 RSPB 역할, 초국경협력에서 습지복원사업 추진 방향 15:00~18:00 ○ RSPB 철새서식지 복원 지역 방문 - 복원과정, 기술 등 사례 조사, 한강하구 지역 적용 및 그린데탕트 활용 시사점 도출
수행결과	○ (일시 및 장소) 7월 18일(목) 8:00~18:00 / RSPB 프램튼 마쉬, RSPB 프라이스토 쇼어 ○ (참석자) 김지윤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도혜선 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William Sutherland 캠브리지 대학 교수, Nicola Crockford RSPB 주정책관, Jeff Kew 이스트코스트 습지 프로그램 매니저, Steve Rowland 노포크 지역 매니저, Bena Smith WWT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 ○ (주요내용) - RSPB 습지는 영국 전역에 220개 지정되어 있으며, RSPB 직원은 2천여명에 달함. RSPB 습지 중 일부는 센터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보조 역할로서 규모를 크게 설치하지 않은 특징이 있음. - RSPB 습지는 방파제를 기준으로 염습지와 인위적으로 조성한 철새 서식지를 두고 있음. 염습지는 해수가 만조시 들어왔다가 간조시 빠져나가는데, 염습지에 자생하는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염생식물은 소를 방목하면서 관리. 이들 소는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염습지에서 생활 - 원래는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했으나, 습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RSPB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금전 보상 등을 통해 매입하여 습지로 복원 - 인위적으로 조성한 습지는 최대한 각 조류들의 습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 따라서 한 공간 있더라도 수심, 모래사장의 유무, 선호하는 식물 식재 등 차별화된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한편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자연적인 벽을 조성하고 탐조대를 설치 - 영국 각지에 RSPB 습지 센터를 운영하여, 조류의 서식지 및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 멤버십, 입장료, 기부금,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유지, 운영 - 매년 약 4만 명이 습지센터를 방문함. 지역민들은 습지 방문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자연이 조성된 모습을 보고 매우 자부심을 느끼며, 연간 회원 가입(48파운드) ○ (사진)
업무⑤	7월 19일(금) 13:00~21:00,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초국경 협력 워크숍 개최
수행계획	○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초국경 협력 워크숍 개최 - 참석자: KMI 출장자,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RSPB), 영국 조류 습지 트러스트(WWT), BirdLife International, Cambridge 대학 William Sutherland 교수, Sayam U. Chowdhury 캠브리지 대학 박사, 최지현 교수 및 현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5명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 지속가능 연안해양 환경 보호 초국경 협력 워크숍 개최 및 발표
- (일시 및 장소) 7월 19일(금) 13:00~21:00, David Attenborough Building Weston Meeting Room
- (참석자) 김지윤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도혜선 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William Sutherland 캠브리지 대학 교수, Nicola Crockford RSPB 주정책관, Jeff Kew 이스트코스트 습지 프로그램 매니저, Steve Rowland 노포크 지역 매니저, Bena Smith WWT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 Vanessa Cutts 캠브리지 대학 박사과정, Nigel Taylor 캠브리지 대학 박사과정, Guy Anderso RSPB 철새 프로그램 매니저, 최지현 제주대학교 교수 등 20명
- (프로그램)

WORKSHOP Reflections on Transboundary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Sustainable Ocean and Coastal Areas

19 July, 2024/ Weston Meeting Room, David Attenborough Building, Cambridge, UK

Time	Themes and Participants for Workshop
14:00~14:20 (20)	[Opening Session] Juhyung Kim, Senior Researcher, KMI: "Introduction of KMI" and "Study on the Foundation of Peace Building and Prosperity in the East and West Sea"
14:20~15:40 (80)	[Session I] Challenges for Sustainable Ocean and Marine Biodiversity : Perspectives from the Korean Peninsula Chair: Senior Researchers, Korea Maritime Institute - Juhyung Kim, Senior Researcher, KMI: "Green Détente Policy and Diversification Platforms for Transboundary Cooperation" - Jiyeon Kim, Senior Researcher, KMI: "Directions for Promoting Green Détente in the Yellow Sea" - Jihyun Choi,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based in Cambridge currently): "Transboundary Maritime Cooperation Building under the Peace Process" - Hyeseon Do, Former Senior Programme Officer, EAAFP Secretariat: "Reflections on Transboundary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Sustainable Ocean and Coastal Areas – Yellow Sea Focused -" - Q&A
15:40~16:00 (20)	Break
16:00~17:30 (90)	[Session II] Importance of the Yellow Sea Transboundary Conservation Cooperation : Global Perspectives through case studies and relevant works Chair: Former Senior Programme Officer, EAAFP Secretariat - Nicola Crockford, Principal Policy Officer, RSPB: "The Importance of Yellow Sea Coastal Wetlands in the EAAF & Engagement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ir Conservation" - Bena Smith, International Wetland Management Manager, WWT: "WWTs Activities in and Aspirations for the EAAF" - Sayam U. Chowdhury, University of Cambridge: "Conservation of EAAF Migratory Birds with Special Focus on the Spoon-billed Sandpiper and Other Key Species" - Jeff Kew, Projects Development Manager, RSPB: "East Coast Flyway – Humber to the Thames(Potential Natural World Heritage Site)" - Vanessa Cutts, University of Cambridge: "Creating Guidance on Salt Marsh and Tidal Flat Restoration" - Nigel Taylor & Vanessa Cutts,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Towards a World Coastal Forum Toolkit: Experience of Collating Evidence and Creating Guidance on Coastal Restoration and Management" - Q&A
17:30~18:00	[Discussion Session] Discussion(All participants)
18:00~	Closing and D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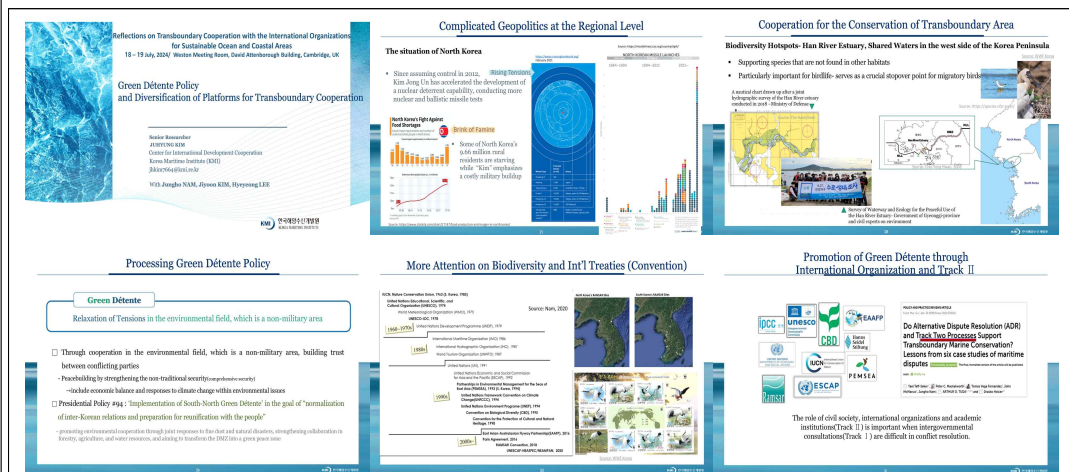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세션별 주요 내용

<세션 1- 지속가능한 해양과 해양 생물다양성과 한반도의 시각>

○ (발표) 김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제목: Green Detente Policy and Diversification of Platforms for Transboundary Cooperation
-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적 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단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각각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
- 해양환경에 대한 남북의 높은 관심을 기초로 그린데탕트 지속적인 추진 모색 필요
- 그러나 남북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이 부족하고 또한 초국경적인 환경 협력을 위해서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학술 단체 등 Track 2의 역할이 중요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초국경 연안 해양환경 협력의 방향과 전략, 협력 플랫폼 다양화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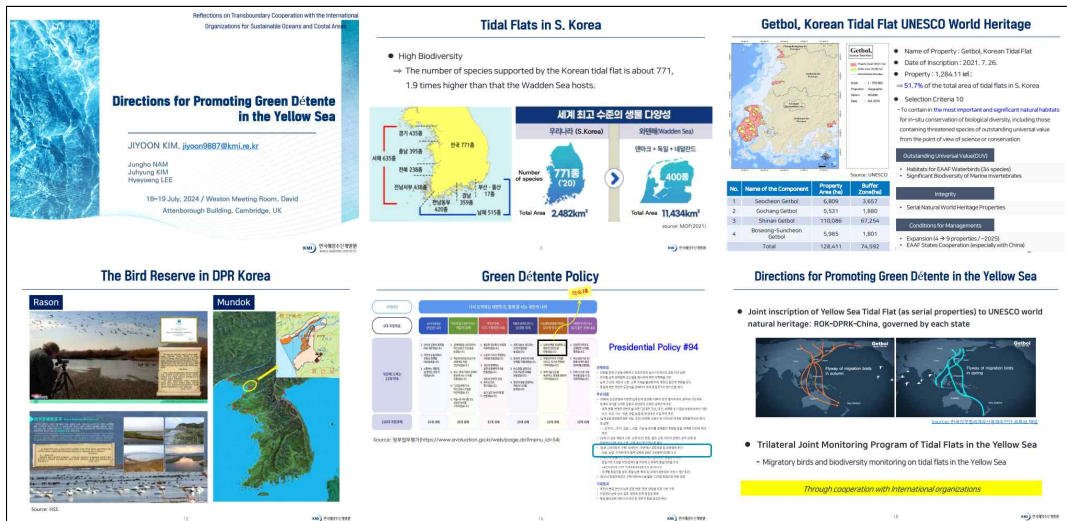


○ (발표) 김지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제목: Directions for Promoting Green Detente in the Yellow Sea
- 한국의 연안습지(갯벌)에는 와덴해 갯벌보다 면적 대비 더 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연간 16조원으로 추산
- 한국은 연안습지(갯벌)의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관리조치를 이행
- 현재 한국에는 연안습지보호구역 17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5개의 갯벌이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한편, 북한은 2018년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고, 문덕, 라선철새보호구를 등재하였으며, 같은 해 EAAFP 파트너로도 가입하여 금야와 문덕 두 곳을 이동경로로 지정하는 등 습지보호에 관심
- 또한, 2021년에는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였으며, 최소 해양의 1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과제 94번에 해당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황해 공동관리 협력을 제안
- 예로, 한-중-북 3개국이 황해에 위치한 각 국가의 갯벌을 이어서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되, 관리는 각 국가별로 수행하고, 공동 지정된 황해갯벌에서 3개국이 공동으로 이동성 철새와 생물다양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단, 국가별 직접적 협력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



○ (발표) 최지현 제주대학교 교수

- 제목: Transboundary maritime cooperation building under the peace process
-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남북은 서로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 남북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짐. 한편, 1953년 남북 정전협정에서는 남북간 해양 휴전선을 다루지 않고 있어 1970년대 이후 해양 경계는 지속해서 쟁점으로 부상함
-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하구에서는 민간 선박의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이스라엘-요르단, 키프러스-북키프러스, 통일전 동서독 뉘백만 어업문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로크에이전시 운영 등 중첩되는 영역/해역에 대한 협력 사례 소개와 각각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사례에서 한국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분석

- 아일랜드 사례에서는 공동 수역에 대한 공동 관리 기관 수립, 독일 사례에서는 통일까지 양국간 경계 획정 조약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지만, 키프러스 사례는 외압으로 양국의 협력이 어렵게 된 사례임
- 한반도에서의 초국경 협력이라고 한다면, 정전협정의 해석에 따라 남북의 수로를 통한 민간 항행에서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 그러나 실제로는 북방한계선의 존재로 선박의 진입이 불가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 Navigation

Amistad Agreement (1953)
16. This Amistad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opposing naval forces, which naval forces shall respect the waters contiguous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to the land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and shall not engage in blockade of any kind of Korea.

Reality
Blockade on the ship crossing over the NLL (South Korea's Navy)

Analysis

- (Israel-Jordan cas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UNCLOS, maritime delimitation under a peace treaty could be regulated.
- (Divided State cases) Maritime Delimitation could improve the stability in the region including divided States
 - (good example) former two Germanies case
 - (bad example) two Cyprus case
- (Divided States) For the peace building on the region, it could produce more compromising result no-delimitation line.
 - Northern Ireland case
- (Lessons) Two Korea case
- (Divided States) A maritime delimitation only has provisional effect till the unification.
- Two Germanies case

Divided States and Maritime Delimitation - former two Germanies case -

Basic Treaty, Article 3
In conformity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shall settle any disputes between them exclusively by peaceful means and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ey reaffirm the inviolability now and in the future of the frontier existing between them and undertake fully to respect each other's territorial integrity.

Supplementary Protocol to the Basic Treaty
In Article 3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have agreed to form a Commission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two States. They will review and, where necessary, renew or supplement the marking of the border existing between the two States and draw up the necessary documentation on the course of the border. In the same way, the Commission will contribute to regulating other problems connected with the course of the border, e.g. water management, energy supply and the prevention of damage. The Commission shall commence its work after the signing of the Treaty.

Till 1985, 89 agreements under the Supplementary Protocol
- One of 89 agreements, an agreement establishing a maritime boundary in Lübeck Bay (in 1974).

+ map # 3

Note (1) The purpose of the line A(7)-B(4) is solely to indicate the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line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in the middle of map # 3 (English, Korean & Chinese)

Northern Limit Line (NLL)

Source : Global Asia Vol. 14, Issue 2 (2019)

Transboundary maritime cooperation building under the peace process

Jeju National University
Choi Jee-hyun
2024.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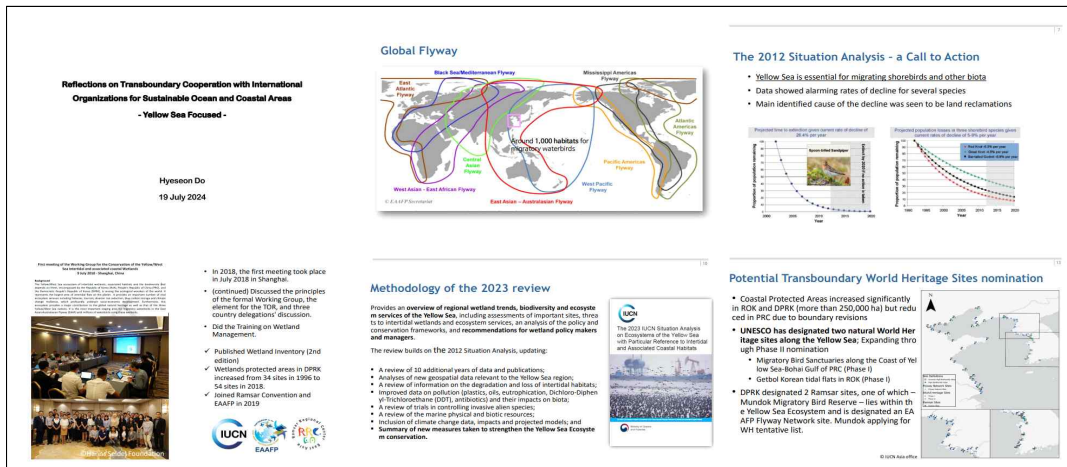
○ (발표) 도해선 EAAFP 전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 제목: Reflections on Transboundary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Sustainable Ocean and Coastal Areas - Yellow Sea Focused -
- 황해는 철새 등 해양생물에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에 속함
- 2012 IUCN 황해 상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조류의 종이 동아시아-호주 경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척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이에, 2018년 중국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황해 조간대 및 관련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었고, 습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북한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이 1996년에 34개소였는데, 2018년에는 54개소로 확대되었고, 2019년에는 람사르협약과 EAAFP 회원으로 가입함.
- 2023 IUCN 상황분석 보고서에서는 황해지역의 습지 동향,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습지관련 정책입안자와 관리자를 위한 제안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제공함.

- 알락꼬리마도요는 EAAF 경로에 서식하는 종으로 황해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연결하고 있음.
- 황해에는 한국과 중국의 갯벌이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1단계), 각각 2단계 확대 지정 추진 중임.
- 북한의 경우 문덕, 라선철새보호구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였고, 문덕철새보호구의 경우, 황해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EAAFP 경로로 지정된 곳이기도 함. 또한, 세계자연유산의 잠정적 목록에 지원하였음.
-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황해 지역의 철새보호를 포함하여 생태계보호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세션 2- 황해 환경 보호를 위한 초국경 협력의 중요성- 해외 주요 사례 및 관련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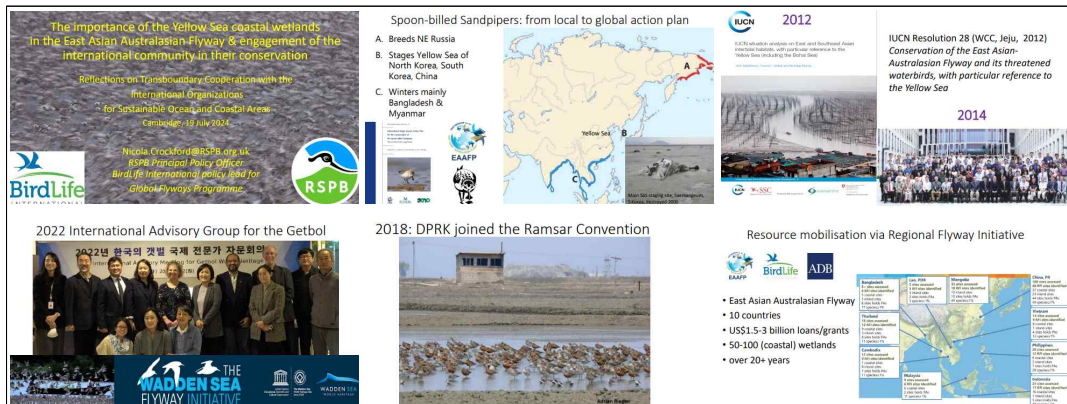
○ (발표) Nicola Crockford, Principal Policy Officer, RSPB

- 제목: The importance of the Yellow Sea coastal wetlands in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 engag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ir conservation
- RSPB는 영국에 기반을 둔 NGO임. 유럽에게 가장 큰 야생동물 자선단체이자 전 세계 약 120개국에 파트너를 두고 있는 BirdLife International의 가장 큰 파트너임. 아직 황해 국가에는 파트너가 없음.
- 연안습지는 BirdLife 글로벌 철새이동경로 프로그램을 4가지 우선순위 중 하나임. 연안 물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협받는 3개 철새 그룹 중 하나인데, 주요 원인은 연안습지 손실과 악화 때문임. 그 중에서도 넓적부리도요새는 현재 약 800여 개체만 남아있음. 특히 황해 갯벌과 만조시 휴식 서식지의 전례없는 손실 속도 때문임. 2006년 새만금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간척으로 인해 중간 기착지가 사라짐.

- 2009년 RSPB의 연안습지와 이동성 물새보전에 대한 전문성, EAAF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넓적부리도요새는 RSPB의 전 세계적 종 중 회복 우선순위 종이 됨.
- 2012년 제주에서 IUCN 총회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황해 국가들과 기타 주체들이 황해 습지 보전을 위한 약속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여기서 와덴해 갯벌 세계유산 관련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이 갯벌세계자연유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은 IUCN의 황해 보전을 위해 실천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중국도 세계자연유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넓적부리도요새의 기착지인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게 됨.
- 북한은 2018년 EAAFP와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여 문덕을 첫 연안습지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함. 영국 또한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지정에 영감을 받아 추진 준비 중임.
- 이처럼 황해는 넓적부리도요새의 기착지로서 초국경적 차원에서 또는 초국가적 연속 유산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
- 앞으로는 철새 보호를 매개로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노력처럼 바다표범, 바다거북 등 다른 이동성 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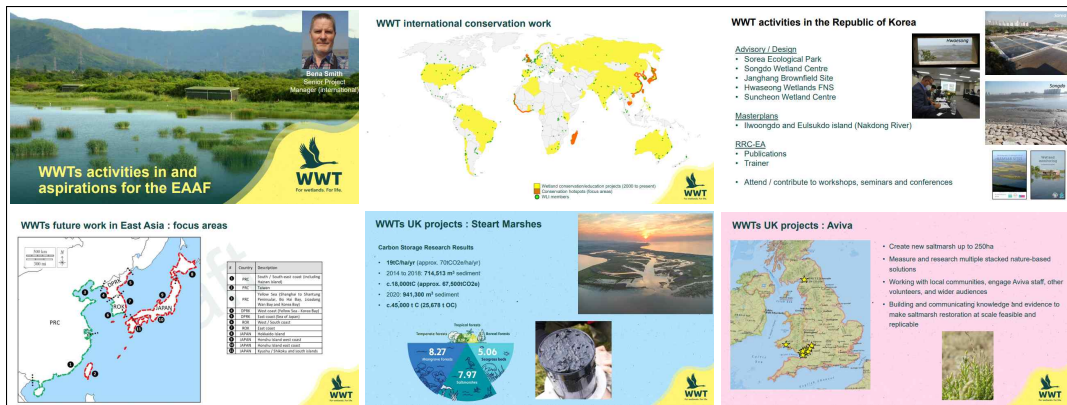
o (발표) Bena Smith, Senior Project Manager(International), WWT

- 제목: WWTs activities in and aspirations for the EAAF
- WWT(Wildfowl&Wetlands Trust)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습지보전 및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습지보전 활동을 추진해옴. 중점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을 선정함.
- 한국에서는 소래 생태공원, 송도 습지센터, 장항 갈대습지 등에 대해 복원 설계 등에 대해 자문함. 낙동강 일운도와 울숙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에 참여, RRC-EA(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와 협력함.
- 중국에서는 2002년부터 27개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에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참여 및 기여함. 습지관리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옴.

- 캄보디아에서는 메콩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역 사이트 관리 및 복원, 지속가능한 쌀 품종 개발, 늪적부리도요, 청둥오리 등 바닷새 보전 활동을 지원함.
- WWT는 2050년까지 동아시아의 조간대 습지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활동할 계획임.
- 영국에서는 Steart Marshes에서 탄소저장연구를 수행했고, Aviva에서 새로운 염습지 조성 및 연구를 수행함.



○ (발표) Sayam U. Chowdhury, Coordinator, Spoon-billed Sandpiper TF, Univ. of Cambridge

- 제목: Conservation of EAAF migratory birds with special focus on the Spoon-billed Sandpiper and other key species
- 늪적부리도요새(Spoon-billed Sandpiper)는 40년 동안 개체수가 90% 이상 감소하였고,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음. 앞으로 15~20년 후에는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임. 현재는 300~500개체로 추정됨.
- 주요 위협요인으로는 번식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서식지가 손실, 포획 및 사냥이 이루어졌고, 번식지에서는 부화 성공이 제한적인 점이 꼽힘. 특히 최근에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함.
- 캠브리지 대학의 늪적부리도요새 연구 TF는 이 종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보전활동을 추진해옴.
- 러시아에서는 주요 번식지 모니터링, 번식 생물학 등을 연구하였고 인공부화 및 방사프로그램을 실시함.
- 미얀마에서는 5개 월동지를 모니터링하였으며, 아예야와디 델타, 모타마 만, 난 타르 섬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됨.
- 중국에서는 한때 개발로 위협이 되었던 티아오지니 습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이곳은 넓적부리도요새 50% 이상이 최대 3개월 동안 머물다 가는 곳임.

-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주요 서식지 보호 및 위협 요인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옴.
- 한국에서는 유부도 등 주요 지역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세부 서식지 이용 패턴에 대해 연구하였음.
- 주로 위성 추적을 통해 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데, 그 과정에서 2024년에 북한 연안습지에서도 새가 발견되었음.
- 현재 TF는 넓적부리도요새가 서식하는 국가의 40여 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o (발표) Jeff Kew, East Coast Wetlands Programme Manager, RSPB

- 제목: East Coast Flyway (Humber to the Thames) Potential Natural World Heritage Site
- 동부 연안 철새 이동경로: 동대서양 철새 이동 경로 상에 있음. 영국 동부 습지의 면적은 170,000헥타르. 영국 잠정 세계 유산 등재(2023.4) 및 유네스코 리스트 등재(2023.11)
- 동대서양 철새 이동 경로: 와덴해와 Banc d'Arguin 등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지역을 포함. 세계적으로 중요한 8대 글로벌 철새 이동 경로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 개체군이 이용하는 세계적 수준의 해안 습지 단지. 동대서양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위치는 100만 마리 이상의 월동 조류와 29종의 물새 개체군에게 중요
- 영국의 동부 연안 철새 이동경로는 기후 변화에 직면한 해안 적응 및 자연 보전 관리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계획적인 습지 보호가 홍수 방지, 서식지 복원, 어업, 휴양, 관광, 수질 및 탄소 저장을 포함한 다양한 이점을 보여줌(붉은가슴도요(Red Knot) 207,000마리가 동부 연안 경로를 이용, 큰뒷부리도요(Bar-tailed Godwit)는 4.5일 간 영국 연안 2000마일 이동)
- RSPB 내부 동부 연안습지 프로그램은 '영국 동해안 습지의 세계적 중요성을 알리는 동대서양 철새 이동 경로'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었으며, 최근 중국과 한국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항해 지역 활동에서 영감을 받음

- 해안 서식지를 복원함으로써 역사적인 손실을 대체하고, 지속불가능한 방파제를 제거, 멸종 위기종에 안전한 서식지 제공, 해안 자연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등의 이점이 있음



○ (발표) Dr. Vanessa Cutts, Cambridg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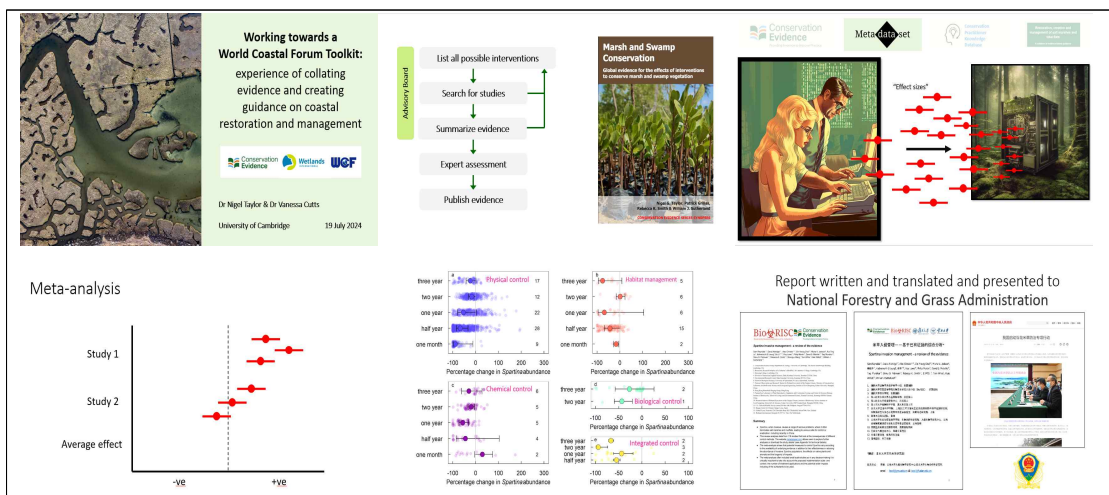
- 제목: Creating guidance on salt marsh and tidal flat restoration
- 습지 국제 및 세계 연안 포럼과 협력하여, 염습지 및 갯벌 복원을 위한 증거 기반 지침 마련. 영어, 한국어, 중국어 버전 마련
- 이 지침은 연안 복원 툴킷의 첫 번째 모듈이며, 규칙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
- 염습지와 갯벌은 철새 및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많은 철새들에게 중요한 지리적 환경으로 먹이, 서식지, 휴식 공간과 같은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동하는 동안 그들을 경유지로 이용됨. 또한 침식과 홍수로부터 해안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과 지역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자, 토양과 퇴적물에 방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
- 지침은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시리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제작. 따라서 특정 문제가 있거나 특정 관리 실무에 관심이 있는 경우 관심 있는 섹션만 선택해서 확인 가능. 모듈화로 설계한 이유는 향후 쉬운 수정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 Dr. Nigel Taylor, Cambridge University

- 제목: Working towards a World Coastal Forum Toolkit
- 생태계 보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 내려야 함. 또한 인간의 개입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함. 따라서 행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작업이 중요
- 보존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안 서식지와 종을 중심으로 한 GOC 증거 작업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 8,500여건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8개 국가, 116개 연구 프로젝트, 3,500개의 효율적인 사이즈를 확인. 무료 온라인 플랫폼인 www.ConservationEvidence.com에서 3,700건의 조치, 8,000건의 시놉시스 연구를 무료로 확인 가능
- 스파르티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전반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생태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한 통합적 통제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서식지 관리 및 생물학적 통제가 그 다음. 개입 후 3년까지 효과가 지속된 것은 통합 제어임
- 최근 중국의 요청으로 스파르티나의 90%를 제거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따른 다양한 관리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사진)

